

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돼 도서관센터에서는 열람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전자도서관, 무인 도서대출반납기, 모뎀책 서비스 등 다양하고 안전한 도서 안심서비스를 선보였다.



#1 안심하고 도서 대출하세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가 9월 25일에서 10월 11일로 잠정 결정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가을에 개최되는 것은 1997년 시작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 개최 #2



근린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근린공원 36개소에 구급 약품함을 비치했다. 구급 약품함에는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밴드와 연고 등 응급약품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3 어린이놀이터시설
공원에 구급 약품함 비치



3월 19일 고양·파주·김포 3개 시는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도시는 확진자 발생과 동선, 중요 정보를 즉각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는 진료·격리시설과 보건인력,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4 고양·파주·김포 코로나 공동대응



#5 지하철 역사에 화사한 미니정원 꾸며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지난 3월 15일까지 관내 3개 지하철역에 미니 장미정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을 위로하고 경기불황에 시달리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6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소독명령 발동

고양시는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했다. 예방 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대표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장 소독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긴급명령 발동 즉시 영업소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